

# 이념 초월한 세계 도서관인의 축제

## 제54차 국제도서관협회 세계총회 참관기

박신석

한국표준연구소 기술정보실장

제54차 국제도서관협회(IFLA) 세계총회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세계의 3대 미항 중의 하나라는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마침 호주는 건국 200주년 기념 축제 분위기 속에서 호주도서관 협회 50주년 총회가 8월27일부터 IFLA 총회에 앞서 열렸다.

이번 IFLA 총회의 주제는 “함께 살기: 국민, 도서관, 정보”이다. 총회는 각국 공식요원들의 결산보고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물론 총회 기간 중에는 몇몇 문화행사와 전시회 그리고 시내 방문 등으로 꾸며져 있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한가할 틈이 없었다.

### 57개국 2500명 참석

이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57개국에서 약 2500여명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세계도서관인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춘희 교수를 포함하여 다섯명이 공식 참석했고, 개인별로 참석한 분을 포함하면 약 20명 가까이 되는듯 싶었다.

총회 기간중 일행들은 각기 갈라져 관심있는 주제분야의 주제발표에 참석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녔다.

시드니는 계절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때여서 사람들마다 복장이 각양각색이었다. 공공건물이나 상가들도 그리 높지 않았고, 주택들은 거의가 단층이었다. 가로수는 앙상한 가지에 드문드문 나뭇잎이 매달린 것이 우리나라의 봄과는 달리 묵은 잎 속에 새 잎이 돋는 모양이다. 그 가지에 호주 건립 200주년을 기리는 작은 등불이 장식되어 밤이면 흡사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전후의 도회지 풍경 같았다. 그러나 녹지대는 신록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동백과 빛나무 그리고 극락조와 같은 이름모를 지구남반구 식물들이 노지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거리는 비교적 한산하고 신호등은 있으나 행인들은 더러 이를 무시하고 넓은 길을 유유히 건너다니고 있었다. 오래된 관청건물은 사암을 다듬어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유배온 죄수들의 품으로 지은 것이란다. 내란을 치르지 않아 석조건물들의 외양이 처

### 때마침 호주의 건국 200주년

### 기념 축제 분위기 속에서

### “함께 살기:국민·도서관·정보”란

### 주제를 내걸고 열린 이번 총회에는

### 세계 57개국에서 2천5백여명이 참가,

### 그야말로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를

### 방불케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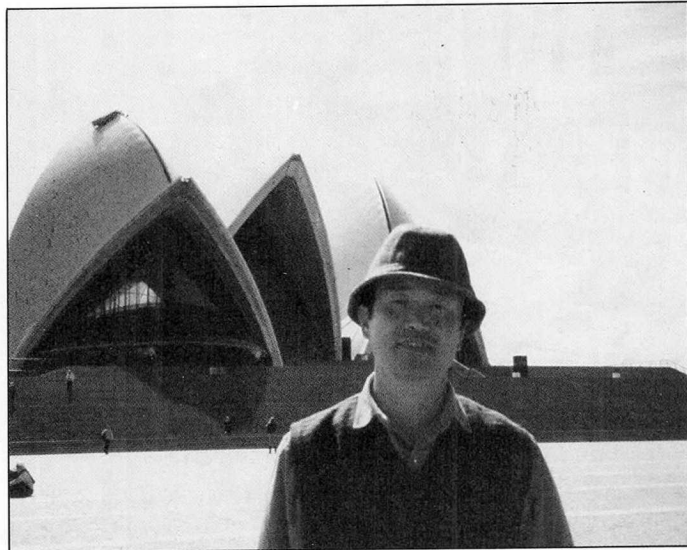
### 한편의 논문 발표도 없어

###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음 지은 그대로 매끄러이 정돈되어 있었다. 역사가 200년만이 안된 나라가 박물관과 화랑 등에 모든 것을 수집 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몹시 부러워보였다. 사람들의 외양이나 성품도 비교적 온순해 보였고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빛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아마 자연 환경의 풍요로움이 몸에 배어서인 듯했다. 총회가 열리는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은 1949년에 개교, 학생이 1만8천여명에 교직원 4천여명이나 된다. 이 학교의 도서관은 생의학, 법률, 물리 그리고 사회인문과학 등 주제별로 약 135만권의 장서와 3천석의 열람석에 220명의 도서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은 BAT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

이번 총회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 동포들을 만난 것이다. 첫째, 중국 북경에서 온 심의림여사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센터 부주임인 40대 중반의 이 여인은 한국계로 화장기 없는 밝은 표정에 겸손한 차림으로 한국에서 온 이들을 만나고 싶어했다. 그가 근무하는 정보센터에는 국의 정기간행물을 4천종이나 구축한다. 부주임이라는 그의 직위도 꽤 비중 있는 자리인 듯했다. 각종 모임에서도 심여사는 늘 그 모습을 보였고, 중국에서 온 참석자들과 외국인들과의 통역도 도맡아 바빴으며,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갖기



개막식이 열렸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조가비 모양의 미려한 외관이 특이하다.



시드니의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에서 열린 세계총회 리셉션장에서의 필자(왼쪽)와 북경에서 온 심의림여사.

를 희망했다.

둘째, 캔버라의 프랑크스톤 대학 도서관장인 김태수여사이다. 이 여인은 12년 전에 호주에 이민을 와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의 위치를 가졌노라 했다. 현재는 호주사람인 왓슨씨와 결혼하고 고국에서 친정어른들을 모시고 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한다. 작은 몸매에 다듬어진 정열이 빛나고 있었다. 이 두 여인을 시드니 주립도서관에서 배풀어진 IFLA 폐회 리셉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국여인의 강건함에 자랑을 느꼈다.

세째, 택시를 타면서 운전석에 앉은 동양계의 젊은 청년이 웬지 남과 달라보였다. 잠시

쉬는 틈을 이용, 요기를 하고 있던 청년에게 행선지를 말하고 시선을 주고 받으니 그 쪽에서 한국에서 왔느냐고 묻는다. 어쩔지 처음부터 느낌이 그랬다. 이민 온 대학생으로 주말이면 아르바이트 운전을 한다. 시드니에는 한국인 택시기가 150여명이나 된단다. 아쉬움을 갖고 내릴 때 그 청년은 초롱초롱한 밝은 눈으로 남은 여정이 보람되기를 빌어줬다. 내 살붙이 같은 정감을 느꼈다.

위의 사람들은 고위관직에 있는 이들도 아닌 보통사람으로, 각기 지역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이들로 몹시도 자랑스러워 보였다.

### 전쟁기념관에 걸린 태극기

시드니에 왔으니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이다. 그림으로만 보던 조가비모양의 외관의 미려함은 물론이며 주위와의 경관이 소문을 능가하는 듯했다. 바로 그곳에서 IFLA 총회 개막식이 있었다. 무대 전면 상단을 꼭 메운 파이프 울겐과 그 연주는 참석자 모두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서둘러 공연일정을 찾아보고 우리의 일정과 맞추어 몇 좌석 남지 않은 푸치니의 라보엠 입장권을 구해 볼 수 있었다. 귀에 익은 음악과 무대 예술에 마음 뿌듯함을 금할 수 없었다. 밤 10시 30분이 지나 막이 내린 후 작은 낭만을 고이고이 간직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시드니 항구를 늦도록 거닐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도 욕심을 내어 비속을 4시간이나 달려 훑어 보았다. 75년전 국제공모를 통하여 건설된 이 도시는 거리의 가로수 하나하나까지 설계자의 구상대로 가꾸어져 있는데, 건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다. 설계자의 이름을 딴 그리핀 호수를 끼고 자리잡은 국회의사당, 각국의 대사관이 한데 모인 대사관 지역, 전쟁기념관 그리고 호주국립대학 등을 방문하였다.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전쟁관과 월남전관이 별도로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전쟁관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전쟁 참전 중 호주의 전사자 명단이 일일이 새겨져 있었다. 문득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 온 우리나라에 목숨을 바친 영혼들을 위해 뚜렷한 기념관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혹시 전쟁이라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글썄, 후세의 경각심과 각오를 위해서라도 자료가 손실되기 전에 챙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호주 국립대학 도서관은 100만권이 넘는 장서를 온라인으로 검색, 열람,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욕심이었을까? 호주까지 언제 다시 오라 싶어 이웃(?) 나라인 뉴질랜드에 들렀다. 호주보다 더 한적한 나라이다. 오클랜드 박물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시립도서관엘 들렀다. 박물관 4층에는 난데없이 전쟁기념관이 함께 자리잡고 있었다. 박물관 1층 아시아관에 있는 한국전시대에는 고려청자와 이조백자가 눈 익은 모습으로 반기고 있었다. 숙소에서

저녁식사 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민속춤을 관람하였다. 우리나라의 변안가요인 '연가'가 마오리족의 민요인 줄도 알게 되었다. 목가 가면은 우리나라 봉산탈 가면 중 목중탈과 흡사한 것이 친근감을 느껴 거금을 주고 챙겼다.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바빠 돌아다니는 일정을 되돌아 보았다. 참가 목적이 분명 IFLA 총회 참석인데, 너무 욕심을 내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총회에 참석하라 이곳저곳 도서관과 박물관 등도 방문하러니 체력도 달린 듯했다. 각종 주제 발표에 우리나라에서는 한편의 논문 발표도 없었던 것이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또한 20명 가까운 국내 참석자들이 총회장에서 별로 얼굴을 접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혹시 본말이 바뀐 여정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IFLA총회 개최국가 내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총회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듯했으나, 완벽한 국제회의의 계획과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사전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선다. 무수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봄이 시작되는 나라에서, 며칠 후 올림픽이 개최되는 초가을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에 각오가 새롭다.

## 출판저널

###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

### 저작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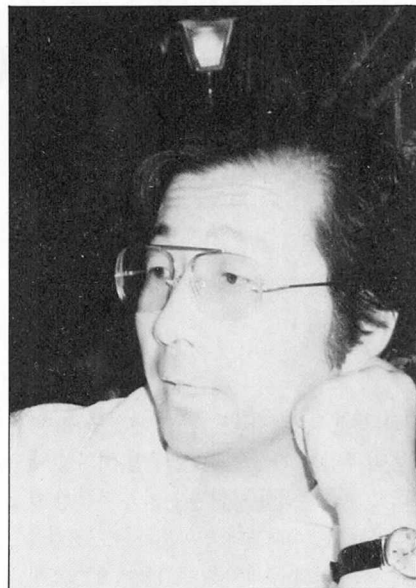
# 사회사상 형성과 노동의 역할

## 「勞動과 思想」

車仁錫

서울대 교수·사회철학

**근세 이래의 주요한 사회사상을 노동관의 변화를 통해 분석해볼 생각이다. 여기에는 지식사회학이 방법으로 원용될 것이다.**



1987년 가을에 내놓은 「사회인식론」은 인식과 실천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를 다루었는데, 다음의 과제는 실천의 가장 기본적 형태인 노동이 사회사상의 형성에서 갖는 역할을 설명할 「노동과 사상」이라는 주제의 저서를 구상하고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노동은 노예나 농노의 육체노동으로서 천시되어 왔으나, 근세에 이르러면서 이는 문학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노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가 그의 영혼구원의 증표로 삼아졌으며, 17세기 영국의 신흥계급에게는 사유재산에 대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정당성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는 이 노동이 잉여가치의 원천이 되면서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권리박탈의 대상이 되었고, 이어서 이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주요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관료적 경영화는 노동자에 대한 수탈보다도 작업의 조직화를 통해서 인간성의 해체를 결과시켰던 것이다. 고도의 생산성 달성과 유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정신적 물질적 자원의 합리적 동원화를 통해서 인간사회를 전면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은 시대의 변화를 거처가면서 여러가지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으나 그때그때마다 노동에 대한 관점, 관념, 사상, 가치관 등이 형성되었다. Locke의 노동관은 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 입장이었으며, 마르크스의 노동소외론이 사회주의 사상의

획기적 관점이기도 했다.

Weber는 노동의 합리화로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달을 설명했는가 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Marcuse는 바로 이 합리화를 비판하고 20세기 문명의 위기를 이 합리성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과 사상」에서는 근세 이래의 주요한 사회사상을 노동관을 통해서 분석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래적 존재가 노동이며, 이 노동은 인간 자신과 자연 그리고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매개한다는 기본전제가 제시된다. 이 점은 이미 필자의 「사회인식론」의 대전제이기도 하며, 다음의 저서는 이들 사회사상의 형성을 밝히는데 지침이 된다.

이 구상에는 英·正朝시대의 실학자들의 노동관도 포함된다. 특히 星湖 李瀼선생의 「勤動」 개념이 이른바 노동가치설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 “富는 대지에서 나오나 노동만이 이를 거둔다”는 그의 주장은 노동이 부의 원천이라는 고전경제학적 생각을 연상케 한다. 삶을 하늘에 맡기지 않고 인간 자신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 영위해야 한다는 실학사상은 한국인들의 근대사상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서는 知識社會學을 방법으로 삼는다. 주어진 사회·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어떠한 의식의 내용을 낳게 하는가를 다루는 학문분야가 지식사회학이라고 한다면, 노동관의 변화도 주어진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달려 있으며, 또 변화된 노동관이 이상적 사회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